



기상청

## 설 명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4. 4.(화) 11:00	배포 일시	2023. 4. 4.(화) 11:00
담당 부서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장 김충기 (064-909-3920)

## 4~6일 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 강풍·풍랑 유의

- 남부·중산간이상 150mm 이상, 산지 300mm 이상 강하고 많은 비, 호우특보 예상
-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강풍·풍랑 안전사고 유의



[ 4월 5일(수) 예상 기압계 모식도 ]

-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전재목)은 산등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화) 낮부터 6일(목) 새벽까지 제주도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고, 강한 바람과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며,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

## [ 강수 전망 ]

- 제주지방기상청은 4일(화)부터 6일(목)까지 산등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에서 유입되는 매우 강한 남~남서풍에 의해, 많은 양의 수증기가 제주도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 (호우) 4일(목) 현재(11시), 제주도 산지와 서쪽지역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낮부터 제주도 전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고, 저기압이 북동진하면서 점차 남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5일(수)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제주도산지에는 시간당 30~50mm 내외, 남부와 중산간에는 20~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 이 높겠고,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특히, 6일(목) 새벽까지 제주도남부와 중산간에서는 150mm 이상, 제주도산지에는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반면 북부 해안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10~40mm)의 비 가 내리면서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 따라서,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하천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리거나 고립될 수 있으며,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겠으니, 시설물관리와 안전 사고, 등산객 또는 야영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예상 강수량(4~6일) >

- 제주도(북부해안 제외): 50~100mm  
(많은 곳 제주도남부, 중산간 150mm 이상, 산지 300mm 이상)
- 제주도북부해안: 10~40mm

- (안개) 한편, 비가 오는 곳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고,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변동성) 이번 강수는 저기압의 발달정도와 이동경로에 따라, 강수시간과 강수량, 강수집중구역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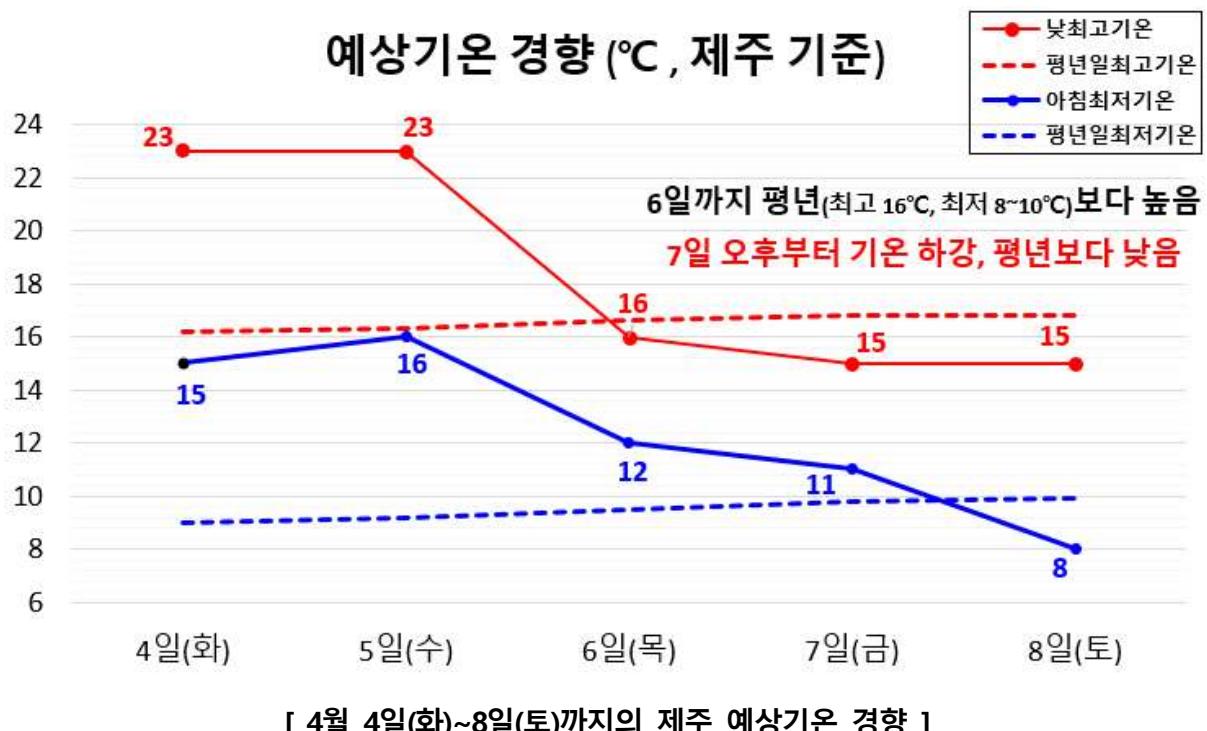
## [ 강풍과 풍랑 전망 ]

- (강풍) 4일(화) 아침부터 산지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90km/h(25m/s) 이상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중이며, 오후부터 5일(수)까지 제주도 육상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전망하였다.
- (풍랑)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2.0~4.0m으로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며, 4일(화) 오후부터는 남해서부서쪽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에도 바람이 30~60km/h(9~16m/s)로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밝혔다.
- 특히, 5일(수) 아침부터 저녁사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북부 앞바다 제외)에는 바람이 45~70km/h (12~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3.0~5.0m로 매우 높은 파고가 예상되면서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또한, 5일(수)부터 6일(목) 새벽 사이 제주도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유의사항) 6일(목) 오전까지 강한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 및 비닐하우스, 간판과 같은 야외 시설물에 대한 점검 관리와 높은 파고에 의한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항공기와 선박편의 운항에 영향이 예상되니,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 기온 전망 ]

- 6일(수) 오전까지 따뜻한 남풍이 한라산을 넘어가면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평년(아침최저 8~10°C, 낮최고 16°C)보다 기온이 4~7°C 이상 높겠고, 7일(금) 오후부터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기온의 변화폭이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과거 유사한 사례 시 제주 강풍호우 피해(22.3.25) 보도자료

**연합뉴스**

### 제주에 태풍급 강풍...항공편 192편 결항, 시설물 피해도

송고시간 | 2022-03-25 17:00

| 초속 25~30m 이상 강풍에 산지 최대 300mm↑ 많은 비 예보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백나용 기자 = 제주에 최대순간풍 속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불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시설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며, 특히 이날 밤부터 오는 26일 아침 사이 순간풍속 초속 25~30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5시 이후 제주 전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이날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 제주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많게는 산지 300mm 이상, 남부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밖에 제주도 육상의 예상 강수량은 50~100mm여, 북부 해안은 10~50mm로 상대적으로 적겠다.

기상청은 강풍과 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나 안전사고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제주 태풍급 강풍...항공편 결항, 시설물 피해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표된 25일 오후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22.3.25 dragonme@yna.co.kr

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육상 전역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오후 4시 30분 기준 저점별 최대순간풍속을 보면 한라산 삼각봉 초속 34.5m, 윗세오름 29.2m 등 산지에서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다.

산지 외 지역에서도 대흘 초속 24.9m, 제주공항 24.6m, 오등 24.4m, 세별오름 24.4m 등 초속 20m 이상의 최대순간풍속이 기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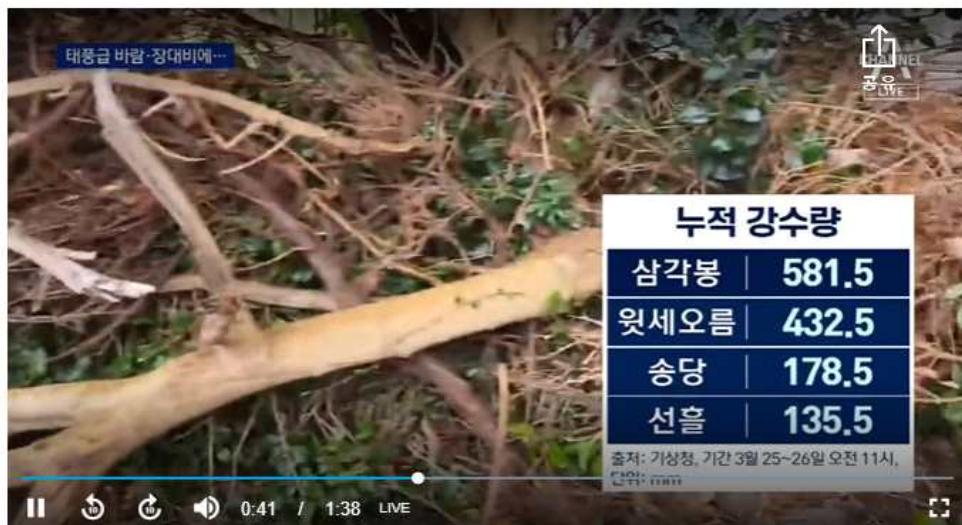
강풍에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경행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제주공항 출발 97편, 도착 95편 등 총 192편이 바람 등 기상상황 악화로 결항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23편(출발 18편, 도착 5편)이 자연 운항했다.

## 제주 할くん '태풍급' 강풍·581mm 장대비…피해 속출

[채널A] 2022-03-26 19:17 뉴스A



대한민국  
지자체 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자작물 자유이용허락